

#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40 >



저기 선글라스 쓰고 앉아있는 박영한 감독. 다른거 안 바랄테니까 지켜보고만 있어주세요.



근데 김 단장님은 어디 가요?

전 코치쪽을 보고있을테니 움직이지 마세요. 아..

아..

하아~ 여자한테 약해. 여자한테 약하다구...



저..저기 저도 일이 있어서 여기 온건데...

도와준다고 했죠? 그럼 만나잖아 도와주세요.

혹시 알아요 감독 옆에 붙어있다가 예상치도 못한 좋은 정보를 얻게 될지?



뭐 메리트?



우리가 언제 메리트 챙겨 준 적 있어? 왜 뜬금없이 메리트야?...응? 뭐?

아..트로잔스 애들이 우리 애들한테 자랑을... 진짜 트로잔스.. 도움이 안된다! 알았어. 이번 시리즈 스왑하면 준비한다고 말해봐... 그래... 응.



그...그건 무슨 소리냐?

박영한 감독은 대신대 동호회 시절부터 있었던 뒤팔까 일종의 명예감독이예요.

있잖아요. 센터키 할아버지 느낌의 마스크트랄까 그런.



나? 나는 지금 여기 대구 산업대 박영한 감독한테 정보를 좀 캐낼라고...응.. 뭐 대기중이랄까...

네? 박영한 감독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텐데...



그럼 여기 책임자는 누구야?

아마 이종호라는 코치일 겁니다. 제 기억력이 확실하다면.

코치쪽을 보고 있을게요.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Culture diary

### SWOT으로 보는 '정글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9일 개봉하는 영화 '정글북'은 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작품이다. 낯익은 원작소설 탓에 '이는 이야기'라 치부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글의 세계를 그야말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 공존의 중요성이 묵직한 메시지로 전해지기까지 한다. 몽블랑 이야기에 심취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또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어벤져스'부터 '겨울왕국'까지 스크린을 장악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컴퍼니는 왜 120년 전 소설을, 그것도 꾸준히 읽혀 익숙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을까. 답은 영화에 있다.



의 힘은 그 세월만큼이나 단단한 법. '정글북'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는 단순한 소년의 모험담에서 끝나지 않는다. 좁게는 한 인간의 성장을, 넓게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자연의 이상 신호를 마주 해야하는 현실에서 '정글북'이 보내는 메시지를 흘러보내기는 쉽지 않다.

#### STRENGTH(강점)...CG로 완성한 환상적인 정글

'정글북'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다. 주인공 모글리를 제외하고 '인간 출연자'는 없지만, 이야기의 무대인 정글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고도 역동적이다. 첨단 컴퓨터그래픽(CG) 기술로 완성한 장면 덕이다. 영화는 오프닝에서부터 관객의 감성을 뒤흔든다. 모글리와 효표범 바기라의 추적이 현란하게 펼쳐지면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관객을 유혹한다. '정글북'은 숲에 버려져 늑대 무리에서 키워진 소년 모글리의 모험담. 무법자인 호랑이 쉬어간의 위험 탓에 인간 세상으로 떠나는 모글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곰 발루를 만나고, 목숨을 빼앗으려는 비단범 카와와 겨룬다. 원숭이 왕 키투이와 대결은 한편의 뮤지컬처럼 흥겹다. '아이언 맨' 시리즈를 기획, 연출해 월트디즈니컴퍼니에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줬다고 평가받는 연출자 존 파브르 감독의 실력이 다시 빛을 발한다.

#### OPPORTUNITY(기회)...'역대급' 동물 연기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는 자주 나왔다. 최근 한국 영화도 꾸준히 도전하는 분야다. 지난해 '대호'(호랑이), 앞서 '미스터 고'(고릴라)가 CG를 앞세워 가상의 동물을 스크린에 구현했다. 이에 만족한 관객도, 실망한 관객도 있다. 반면 '정글북'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그 수만 70여종에 이른다. 모글리들 사이에 두고 벌이는 늑대와 호랑이의 대결, 코끼리들의 이동은 완벽한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이는 첨단 기술력으로 영화의 한계를 부수는 '아바타'와 '그래비티' 제작진의 참여로 가능했다.

#### THREAT(위협)...'정글북' 그 자체

가족영화로도 손색없는 '정글북'은 국내 개봉을 앞두고 가족 관객을 겨냥하기 위해 한국어 더빙 버전까지 제작했다. 앞서 '정글북'은 미국에서 대대적인 흥행을 거뒀고, 4월 중국에서도 관객 물이에 성공했다. 국내 개봉 이후에도 이번이 없는 한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는 영화 '아가씨'의 최종 성적도 '정글북'의 파급력에 달렸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 WEAKNESS(약점)...이는 이야기

'정글북'은 고집스러운 만치 원작을 충실히 따른다. 모글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모험의 과정에 서 만나는 동물들의 면면도 그대로다. 늘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관객의 호기심을 간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야기

### ■ 새 영화

● 행복까지 30일 | 9일 개봉 | 감독 M. 마니칸단 | 주연 비네시, 라메시

오로지 피자를 먹어 보기 위해 '험난한 세상살이'에 나선 가난하고 어린 두 형제의 이야기. 달걀을 살 돈이 없어 까마귀알을 주워 먹고 사는 형제는 까마귀 동지가 있던 나무가 잘리고 그 자리에 피자 가게가 들어서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세운다. 피자를 먹겠다. 하지만 돈은 없고, 이내 거리로 나선다. 실제 빈민가에서 캐스팅된 주인공들이 가난한 살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이없는 세상의 차별을 드러내며 눈시울을 적신다. 과연 형제의 목표는 이뤄질까.



● 시선사이 | 9일 개봉 | 감독 최익환·신연식·이광국 | 주연 김동완, 오광록, 박주희 등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드러내는 옴니버스 영화. 최익환 감독은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우리에게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로 교문 출입을 제한하는 학교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교분투하는 소녀 3인방의 이야기를 그린다. '과대망상자(들)'의 신연식 감독은 정제 모를 '빅브라더'에 감시당한다는 망상에 빠진 청년의 좌충우돌을, 팍팍한 현실을 그린다. 이광국 감독은 보험설계사가 겪는 기이한 하루의 이야기 '소주와 아이스크림'으로 외로움의 메시지를 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소재로 만들어온 '시선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 Biz gallery

### 동국 제약, 디에페 오일 다이어트 출시

동국 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의 다이어트 전문 브랜드 디에페가 식물성 오일 다이어트(사진)를 출시했다. 식물성 오일 다이어트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화씨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특허 공법을 통해 식물성 캡슐에 담아낸 건강 기능식품이다. 원료로 사용된 홍화씨오일과 코코넛오일은 지방축적 억제와 체지방 분해 및 감소, 기초대사 및 신진대사 활성화 작용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 한미약품, 올무티닙 글로벌 임상 본격화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이 최근 출시한 내성표적 폐암 혁신신약 올무티닙(한국 제품명 올리타)의

글로벌 개발을 본격화한다. 올무티닙의 전 세계 판권(한국, 중국 제외)을 사들인 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올무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2세대 치료 약물 지오트립, 중앙세포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치료제 바가테프 등 다양한 약물과의 병용을 통해 새로운 치료요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무티닙은 기존의 폐암 치료제 투약 이후 나타나는 획득내성과 부작용을 극복한 3세대 내성표적 폐암신약이다.

### 아모레퍼시픽, '러' 함초수 라인 3종 공개

(주)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 러(르)는 창포, 국화, 달맞이꽃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을 케어해주는 함초수 라인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함초수 '창포 담은' 라인은 과도한 피지 분비가 걱정되는 지성 두피에 적합하고, '국화 피은' 라인은 흰 감곡의 우수한 보습 효과와 촉촉한 사용감으로 중건성 두피 타입에 효과적이다. '달맞이꽃 채은'

라인은 달맞이꽃 종자유의 집중영양으로 모발 볼륨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러(르)는 함초수 라인 출시를 기념해 '러 함초수 단오 에디션'을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 마몽드, 'AC 밸런스 라인' 선포

마몽드는 천연 바하 성분으로 이루어진 BHA 솔루션 라인 'AC 밸런스 라인'(사진)을 출시했다. 'AC 밸런스 라인'은 피부 표면 및 모공 속 묵은 각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특히 피부 트러블, 여드름 등에 효과가 있다.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 깊은 곳까지 부드럽게 씻어내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AC 밸런스 마일드 폼', 노폐물과 묵은 각질,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를 케어하여 피부의 PH밸런스 정상화를 도와주는 'AC 밸런스 토너'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 메디안, 전문케어 치약 검역소프트 출시

메디안이 치아와 잇몸건강에 도움을 주는 전문케어 치약 검역소프트(사진) 라인을 출시했다. 잇몸케어 위한 베이직 라인, 잇몸과 시린 이를 한번에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드밴스드 라인 등 총 2종이다. 베이직은 칫솔질 후 치아와 잇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어드밴스드는 시린이 완화에 효과적인 KNO3 성분 이 함유돼 잇몸과 시린이를 한번에 케어할 수 있다.



### 독십자, 신입사원 봉사활동

독십자(대표 허은철) 신입사원 110여명이 경기도 용인의 '여럿이 함께' 푸드뱅크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해든솔'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독십자는 신입사원 입문 교육프로그램에 봉사활동 시간이 들어있다.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

입사원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면서 회사의 핵심가치인 봉사배려, 인간존중 등의 독십자 정신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 독십자랩, 차세대 항암치료제 공동개발

독십자랩(대표 박복수)이 유전자치료제 분야 세계최고의 기업과 손잡고 차세대 항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차세대 유전자 변형 항암 NK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을 놓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상대는 영국의 옥스포드바이오메디카, 노바티스,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했고 생성된 제품 대부분을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상용화시킨 유전자 치료제 부문 세계최고의 회사다. 독십자랩이 개발한 항암 자연 살해세포 치료제 'MG4101'은 NK세포 연구부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임상 2상에 진입한 상태로 NK세포에 관한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